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23 (월요일)

[오늘의 한 줄]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 뒤 열린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가 다시 3.31% 내렸습니다. 장중 저점에서는 일부 회복했지만, 종가는 4,708.54로 더 낮아졌습니다. 기관 전체는 순매수로 돌아섰으나 연기금등은 순매도했습니다. AI 위험 항목에서는 9월의 불가항력 통보와 최근 30일 안의 새 사건을 구분했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23 정규장 마감)

- 코스피 4,708.54 (-161.42, -3.31%). 4,734.90으로 출발해 장중 4,586.80까지 내렸다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종가는 1/13(4,692.64) 이후 최저입니다. 11/19 종가부터 2거래일간 누적 하락률은 8.36%입니다. [계산]
- 오전 11시 33분경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11/20에 이어 2거래일 연속입니다.
- 코스닥 635.45 (-10.23, -1.58%). 장중에는 618.74까지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2024년 12월 9일 이후, 장중 저점은 2020년 4월 22일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연합뉴스).
- VKOSPI 55.83 (+2.67, +5.02%, Hongzi 집계). 직전 두 거래일 하락 뒤 상승했습니다. 옵션 가격에 반영된 예상 변동성이지 주가 하락 확률은 아닙니다.
- 삼성전자 177,500원 (-3.06%), SK하이닉스 1,085,000원 (-2.52%), 삼성전기 778,000원 (+0.52%). 삼성전기는 장중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 전력기기: HD현대일렉트릭 377,500원 (-2.33%), 효성중공업 1,639,000원 (-2.38%), LS일렉트릭 110,200원 (+0.46%).
-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1,345.9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9.7원 올랐습니다. 원화 약세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마감 기사, 한국증권, Hongzi, 네이버·야후 시세
출처 원문: www.yna.co.kr
출처 원문: www.ksdaily.co.kr
출처 원문: fear.hongzi.us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오후 3시 35분, KRX·연합인포맥스)

- 코스피: 외국인 -2,372.3억원, 개인 -3,670.2억원. 기관 +1,871.6억원, 기타법인 +4,268.2억원입니다. 외국인은 마감 기사 기준 7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 기관 내부는 갈렸습니다. 금융투자 +4,809.0억원, 보험 +567.7억원인 반면, 연기금등 -1,577.4억원, 사모 -1,053.3억원, 투신 -535.2억원입니다. 기관 순매수를 연기금 매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코스닥: 기관 +1,979.4억원, 외국인 -341.5억원, 개인 -1,743.6억원, 기타법인 +118.0억원입니다.
- 위 수치는 15:35 집계입니다. 연합뉴스 종합 기사의 코스피 외국인 -2,472억원 등과 차이가 있어, 여기서는 투자자별 표의 동일 시각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네이버의 더 늦은 집계와도 섞지 않았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출처 원문: www.yna.co.kr

■ 시장안정조치: 준비와 실제 매수를 구분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의결을 거쳐, 11/24(화)부터 2027/2/23(화)까지 자사주 하루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신탁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 증권시장안정펀드는 필요할 때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한다는 발표입니다. 이미 펀드가 주식을 샀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자사주 주문 한도 완화도 개별 기업의 실제 매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2건
출처 원문: www.fsc.go.kr
출처 원문: www.fsc.go.kr

■ 미국 시장 (11/20 금요일 정규장 마감)

- 나스닥 22,617.73 (-5.28%), S&P500 6,910.39 (-3.70%), 다우 48,147.33 (-1.93%), 러셀2000 2,581.79 (-2.76%),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8,408.59 (-10.73%).
- CNBC에 따르면 S&P500과 다우는 종가 고점에서 10% 이상 내려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나스닥100은 5.6% 하락했고, 장중 고점 대비 20% 하락선에 닿았습니다. 장중 기준과 종가 기준은 다릅니다.
- 엔비디아 125.53달러 (-14.01%), 마이크론 594.51달러 (-13.89%). 팔란티어(PLTR) 143.49달러 (-6.63%), 아이온큐(IONQ) 20.72달러 (-8.76%), 아마존(AMZN) 246.82달러 (-4.10%)입니다.
- 앤트로픽은 8.5% 하락했습니다 (CNBC).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상승과 둘째 날 주가 하락은 별개로 기록해야 합니다.
- 로이터는 11/20 관계자 2명을 인용해 SEC 조사의 초점이 엔비디아 회계 처리라고 보도했습니다. SEC는 논평을 거부했고 회사는 즉시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개시일과 구체 항목은 불명이며, 위반 확정이나 제재 발표가 아닙니다. CNBC도 로이터 보도 뒤 주가 낙폭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CNBC 마감 기사, 로이터 원문, 야후 일별 시세
출처 원문: www.cnbc.com
출처 원문: www.reuters.com
출처 원문: finance.yahoo.com

■ 채권·선물·원자재

- 미 국채 (11/20 재무부 확정): 10년물 4.92% (전일 대비 -12bp), 2년물 4.63%, 3개월물 4.32%, 30년물 5.31%. 10년-2년 금리차는 +0.29%p입니다. [계산]
- 한국 국채 3년 3.626% (-1.6bp, 11/23 16:18 네이버 집계). 일본 30년물은 오늘 날짜의 일관된 확정값을 확보하지 못해 싣지 않습니다.
- 나스닥100 선물(NQ=F) 25,987.75, WTI 82.43달러, 브렌트 88.84달러, 금 선물 3,620.1달러. 모두 11/23 한국시간 21:02 전후 야후 지연 시세이며 미국 정규장 마감값이 아닙니다.
- EIA 주간 소매 연료가의 최신 공개일은 11/17, 측정일은 11/16입니다. 미국 전국 평균은 휘발유 갤런당 3.805달러, 도로용 경유 5.937달러입니다.

다음 공개 예정일은 미국 현지 11/24입니다. 오늘은 두 값 모두 EIA 원문 표에서 확인했습니다.
출처: 미 재무부, 네이버, 야후, EIA
출처 원문: home.treasury.gov
출처 원문: query1.finance.yahoo.com
출처 원문: www.eia.gov

[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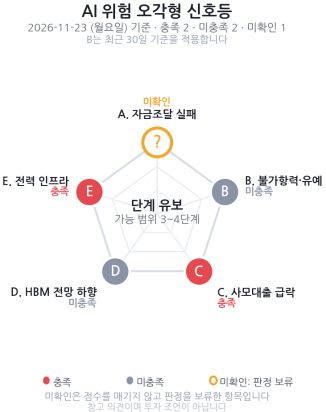
검증일이 오늘인 과거 판단 두 건을 확인합니다.
- 11/20 판단: "코스피 종가가 4,869.96 아래일 것". T+1(11/23) 실제 종가 4,708.54로 적중했습니다.
- 11/16 판단: "코스피 종가가 5,100.50 아래일 것". T+5(11/23) 실제 종가 4,708.54로 적중했습니다.
- 누계 43건 중 27건 적중입니다. 같은 하락 흐름을 겹쳐 관측한 결과이므로 독립적인 43번의 시험은 아닙니다. 단순 방향 판단의 참고 기록이며 투자 성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단]

- 장중 저점에서 올라왔다는 사실과 하락 추세가 끝났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코스피 종가는 더 낮아졌고, 외국인 순매도도 이어졌습니다. 기관 전체의 순매수는 확인되지만 연기금등까지 매수한 것은 아닙니다.
- 정책 대응도 발표와 실행을 나눠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자사주 주문 한도가 풀리지만 기업이 얼마를 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증안펀드도 준비 단계입니다. 이 두 발표만으로 바닥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반도체 전망에서는 회사와 증권사의 말을 구분합니다. 조선비즈는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028년 이익 추정과 목표주가를 낮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증권사 전망 조정이지 두 회사의 HBM 전망 하향 공시가 아닙니다. 원 보고서는 직접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4,708.54 아래일 것". T+1은 11/24(화), T+5는 11/30(월) 종가로 검증합니다.
- 판단을 바꾸는 조건: 외국인 순매도 중단, 금융투자 이외 기관의 매수 확대, 기업의 실제 자사주 매수, 미국 반도체주의 하락 진정 여부입니다. SEC 조사와 회사 전망은 공식 후속 발표가 나오는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출처: 조선비즈 (골드만삭스 전망 인용)
출처 원문: biz.chosun.com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살피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B의 최근 30일 기준은 과거 기록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A. AI 기업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미확인. 네비우스 채권 철회는 결정일을 특정하지 못했고, 확인된 별도 2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지연이나 발행시장 위축을 실패·철회 건수로 바꾸어 세지 않았습니다.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 통보 또는 지급 유예 (최근 30일): 미충족. 9/24 오라클의 Project Jupiter 불가항력 통보는 CNBC 자체 확인과 로이터 취재로 확인되는 기존 사건입니다. 다만 10/23 기록에서 명시한 30일 유효기간이 10/24에 끝났으므로 오늘 새 충족 건으로 세지 않습니다. 최근의 대출매각 보도도 통보 날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통보는 가동이 지연될 경우 지급을 늦추려는 조치이며 실제 연체나 사업 철수 확정과 다릅니다. 당시 오라클은 계획 일정 유지와 사업 의지를, 블루아울은 금융 약정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30일의 신규 통보·지급 유예는 오늘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 중 2사 이상이 6개월 종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 충족. 아폴로 -22.58%, KKR -23.21%, 블랙스톤 -25.80% (11/20 종가). 세 회사 모두 기준선 아래입니다.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 실적 전망 하향 공시: 미충족. 오늘 확인한 범위에서 해당 회사의 공식 하향 공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증권사 목표주가·이익 추정 하향이나 SEC 조사 보도는 이 조건의 대체 근거가 아닙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 중 2종 이상이 6개월 종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 충족. GE버노바 -40.48% (11/20), HD현대일렉트릭 -68.38%, 효성중공업 -57.89%, LS일렉트릭 -61.33% (한국 3종 11/23). 고점은 매일 이동하는 최근 6개월 창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계산]
- 종합: C·E 2개 충족으로 '3단계'에 해당합니다. A가 미확인이므로 확정 단계는 유보하며, 가능 범위는 직전 기록과 같은 3~4단계입니다. 9월 통보의 재확인을 오늘 새 위험 발생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CNBC·로이터 9/24 보도 전문, 야후 최근 6개월 일별 종가
출처 원문: www.cnbc.com
출처 원문: www.reuters.com

임계값과 단계는 미리 정한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 모형이 아닙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